

뉴스 라운드업

- 중동 분쟁 확산 — 후티 반군의 사우디 홍해 항만 유전 공격·미군의 이란 본토 타격으로 지난 목요일 마감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코스피 -5.72%·닛케이 -2.73%·CSI 300 -1.67%); 금요일 이후 추가 전개에 대한 아시아 반응은 오늘 개장 후 확인 예정
- 금요일 미국·유럽 충격 제한 — 협상 채널 재가동 기대에 WTI \$89.31(-3.1%)로 반락, S&P 500 보합·STOXX 600 +0.82%; 미 하이일드 스프레드 277bp(+9bp) 확대로 신용시장 경계감 지속
- 연준 인상 베팅 가시화 — 유가 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투자등급 채권펀드 주간 71 억 달러 역대 최대 순유출; 7/29 FOMC 금리 인상 확률 36%, 9 월 이후 회의에서는 80% 이상 인상 가능성 반영
- 트럼프 관세 전면화 — 강제노동 관세로 미국 수입품의 99.4% 실질 커버,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등 추가 조사 개시로 무역 불확실성 구조화

중동 확산과 관세 전면화가 맞물리며 아시아 급락·미 인상 베팅으로 이어졌고, 유가 반락이 미국 증시에 임시 방어선을 제공했다

지난 목요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항만의 유전 시설을 공격하고 미군이 이란 케심섬과 카스피해 연안 길란주 일대를 타격하면서 중동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산됐다. 이 여파로 목요일 현지 마감한 코스피는 -5.72%, 닛케이 225는 -2.73%, CSI 300은 -1.67% 하락했다. 이후 사우디 방공망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미국-이란 간 협상 채널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에는 WTI가 \$89.31(-3.1%)로 반락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 S&P 500은 7,411.98(+0.05%)로 사실상 보합 마감, 유럽 STOXX 600은 +0.82% 반등하며 직전일 충격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국·결프 국가 위협 발언, 우크라이나 드론의 카스피안파이프라인권소시엄(CPC) 수출 터미널 타격 등 지정학 리스크는 주말에도 꺾이지 않아, 오늘 아시아 개장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더 구조적인 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경로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지난주 미국 투자등급(IG) 채권펀드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대인 71 억 달러가 순유출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요일 4.681%로 마감했다. 연방기금시장 시장은 오는 7월 29일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36%로 반영하고 있으며, 9월 이후 회의부터는 인상 확률이 80%를 넘어선다 — '인하 대기'가 아니라 '추가 긴축'이 시장의 기본 전제로 굳어진 형국이다.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277bp(+9bp)로 확대된 점도 같은 방향의 신호로 풀이된다. VIX가 18.57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패닉 국면은 아니지만, 하우스 뷰에서 제시한 '온건한 위험 회피' 구도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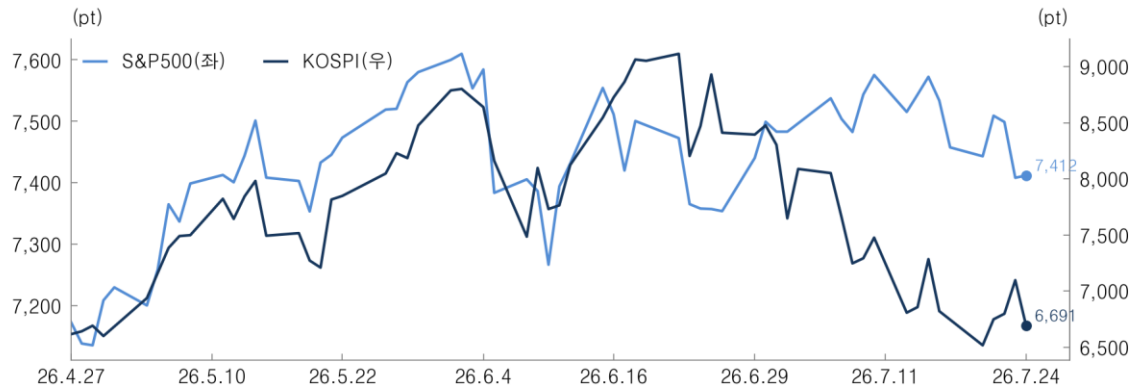
무역 전선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명목으로 미국 수입품의 99.4%를 커버하는 10~12.5% 추가관세를 확정했으며,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와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새 조사도 개시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를 "전략적 실수"로 비판했고, 브라질은 수출의 23%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리스크도 호르무즈 단일 축에서 카스피해로 지리적 확산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하우스 뷰가 경고한 공급 리스크 다원화의 현실화라는 점에서 중기 인플레이션 경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는다. JP 모건은 엘니뇨·유가 이중 충격이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0.3%포인트를 추가로 얹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에너지 가격 반락이 추세 전환인지 일시적 조정인지가 이번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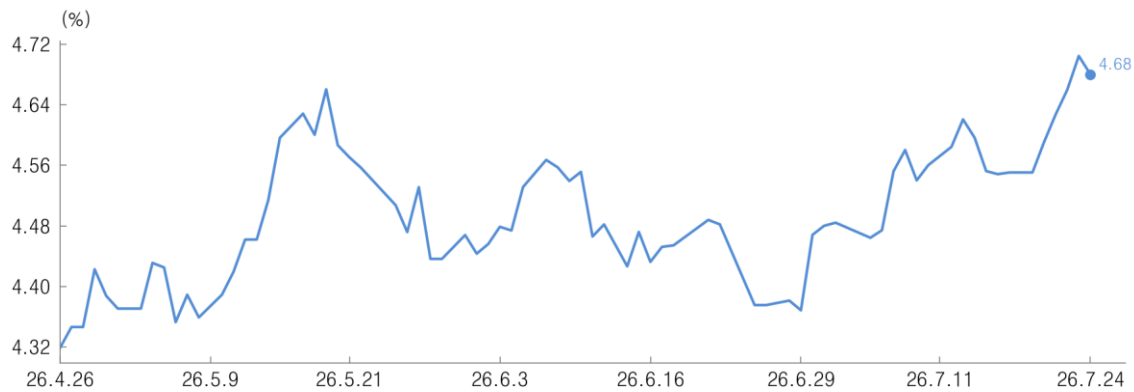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411.98	+0.05%	7/24 종가
	나스닥	24,975.82	-0.64%	7/24 종가
	STOXX 600	644.52	+0.82%	7/24 종가
	닛케이 225	64,610.93	-2.73%	7/24 종가
	CSI 300	4,649.19	-1.67%	7/24 종가
	KOSPI	6,690.62	-5.72%	7/24 종가
	항생	24,963.23	-0.98%	7/24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101.47	+0.03%	7/24 종가
	달러/엔	163.64	-0.11%	7/27 종가
	유로/달러	1.14	+0.20%	7/27 종가
	달러/원	1,459.42	-1.00%	7/24 종가
	달러/위안	6.77	+0.03%	7/2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81%	-1.8bp	7/24 종가
	미국 2 년	4.337%	-1.4bp	7/24 종가
	일본 10 년	2.804%	+3.0bp	7/24 종가
	독일 10 년	3.183%	-1.6bp	7/24 종가
	한국 10 년	4.454%	+7.1bp	7/24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7bp	+9.0bp	7/23 종가
원자재	WTI	89.31	-3.12%	7/24 종가
	금	4,052.60	+0.10%	7/24 종가
	구리	6.36	+0.22%	7/24 종가
변동성	VIX	18.57	-0.64%	7/24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5 건 HIGH	• 중동 분쟁 악화로 브렌트유 \$100 급등, 연준 인상 기대 부상 ↳ 브렌트유 배럴당 \$100 이상 급등(목요일), 금요일 소폭 조정(하루 4% 하락)에도 \$100 근처 회복 ↳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수십 년 고점 인근에서 회복; 시장은 연준의 수주 내 인상 가능성을 1/3, 9 월 내 80% 이상으로 평가 ↳ 지정학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러시아 대상 이란 무기판매 금지 경고(베이징 정상회담 시 시진핑 무기 미판매 약속, 푸틴도 동일), 엔화는 40 년 최저 근처 약세 • JPMorgan, 강화된 엘니뇨·유가 급등으로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0.3%p 상승 경고 ↳ 엘니뇨 81% 확률로 올해 말 매우 강한 수준 진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결합 시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0.3%p 추가 상승 압력 ↳ 신흥시장이 특히 취약 —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 노출 집중 • 캐나다·UAE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미국 의존도 다각화 추진 ↳ 카니 총리, 미국 중심 교역 구조 개선 목표로 UAE 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 중동 시장 진출 개선, 에너지·광업·항만·인공지능 부문에서 두바이·아부다비 자본 유치 기대 • 캐나다 6 월 생산자가격 -1.4% 하락, 원자재·에너지 약세 ↳ 산업제품가격 -1.4% 월간 하락(전월 +1.4%), 에너지·석유제품·비철금속 가격 약세 반영 ↳ 원자재가격 -6.9% 월간 급락(연율 +20.7%); 에너지 부진 속 인플레이션 모멘텀 최근 급격한 둔화 • 이스라엘 5 월 산업생산 -6.2% 급락, 분쟁 영향 반영 ↳ 계절조정 산업생산 -6.2%(전월 +29.9%), 분쟁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심각
미국 뉴스 58 건 HIGH	• 지난 금요일 미국-이란 군사 충돌 확대로 유가 \$100/배럴 돌파, 중동 긴장 최고조 — 10 년물 미국채 수익률 4.71%로 1 월 이후 최고점 ↳ 미국 미사일 공급 범위 확대: 이란 남부 케슈 섬에서 카스피해 북부 길란주까지 광범위 타격(24 일 현재) ↳ Trump 대통령이 '여전히 충분한 고통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 추가 군사행동 의도 표시 ↳ 이란 FARS 통신 25 일 보도: 미국의 LPG 선박 미사일 공격으로 선원 2 명 사망, 엔진실 손상으로 전력 상실(미국이 이란산 가스 운반 탱커로 오인) • 투자등급 채권펀드 사상 최대 유출 기록 — 금리 급등 속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고정수익 자산 일제히 부진 ↳ 투자등급 채권펀드 지난주(22 일까지) 순 유출 \$71 억(주간 사상 최대), 7 월 20 일 일일 유출 \$82 억 경신 ↳ 10 년물 미국채 수익률 4.71%로 1 월 이후 최고점 기록, 신용스프레드 동시 확대로 차입 비용 급증 ↳ 연방기금선물 기준, 7 월 회의(수요일 임박) 금리 25bp 인상 가능성 이미 시장 반영 •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신규 발동 — 10~12.5% 범위, 미국 수입의 99.4% 포괄

권역	요약
	↳ USTR 발표: 60 개국 무역 파트너에 강제노동 혐의 기준 적용하는 신규 관세 부과 ↳ 범위의 광범위함: 미국 수입액의 99.4%를 아우르는 조치로, 사실상 모든 무역 파트너 대상 ↳ 추가 조사 병행: 공급 과잉(excess capacity), 베트남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 등 포함 • 브라질 Lula 대통령, 새 미국 관세를 '전략적 오류'라 비판 — 수출 23.1% 피격, 16.5%는 37.5% 복합 관세 대상 ↳ 미국 신규 관세 충격: 브라질 수출의 23.1%가 영향받을, 이 중 16.5%는 25%(기본) + 12.5%(강제노동) 복합으로 37.5% 수준 ↳ Lula 26 일 워싱턴포스트 기고: '지난달 우리 팀 수습 차례 회의·기술 자료 제출했음에도 무시되고 관세 갑자기 부과' 항의 ↳ 평가: 미국-브라질 양자 협력 훼손, 미국 소비자 비용 증가 초래 우려 표명 • 6 월 주택 판매·7 월 서비스 PMI 강한 모습 보이나, 금리 급등으로 경제 선행 둔화 신호 증가 ↳ 6 월 단독주택 판매 62.8 만 호(컨센서스 61.0 만, 5 월 61.8 만 호 대비 증가), 주택시장 수요 견조 ↳ 7 월 S&P Global 플래시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53.6(시장 전망 51.5 크게 상회), 서비스업 활동 여전히 견조 신호 ↳ 미국채 수익률 급등(4.71%)으로 차입 비용 상승 → 향후 주택·소비 기반 약화 우려 시작 • 기술주 약세 지속, 대규모 AI 장비투자 우려 + 중동 긴장으로 고위험 자산 부진 ↳ 나스닥 약세: 반도체주 일제 매도(Nvidia 등) — AI 인프라 투자 규모·수익성 재평가 심화 ↳ Intel 은 실적·가이던스 상향했음에도 반도체주 약세 속 동반 하락, 섹터 전반의 회의론 반영 ↳ S&P 500 은 보험권이나 주간 누적으로는 약세, 유가 변동성 속 수익 재조정 진행 • 트럼프, 사우디 민간 핵협력 조건 변경 —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이스라엘 정상화 의무화로 정치화 ↳ 미국 에너지부, 사우디와 첫 상업용 원전 개발 양해각서 서명했으나 Trump 대통령이 조건 추가 설정 ↳ 새 조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합의(아브라함 협정, Abraham Accords)에 참여해야만 핵협력 진행 가능 ↳ 트럼프 추가 언급: 시진핑 주석·푸틴 대통령에게서 이란 무기 공급 금지 약속 받음(중국·러시아 개입 차단 목표) • 연준 수요일 회의 앞두고 금리 결정 임박, 동시에 기술주 대형 실적 러시 시작으로 시장 주목 ↳ 연준 7 월 회의(수요일 예정): 시장 대다수 현 수준 동결 기대하나, 유가·금리·지정학 변동성으로 통화정책 방향 불투명성 확대 ↳ 기술주 실적 일정: Alphabet(이미 부진), Microsoft, Meta, Amazon, Visa, Chevron 등 발표 예정 ↳ Digital Realty 긍정 실적 랠리(데이터센터 수요 탄탄) — AI 투자 수혜 분야 구분 필요
유럽 뉴스 16 건 HIGH	• ECB·BoE 점진적 긴축 경로 신호 — 물가 12 개월 내 2% 복귀, 9 월 인상 예상하되 공격적 조치 아님 ↳ ECB 최고경제학자 레인(금요일): 현 물가 충격을 '중간 규모'로 평가, 정책 행동 필요하지만 공격적 조치 불필요

권역	요약
	↳ 현재 물가 약 3%, '향후 1 년 정도' 내 2%로 복귀 목표, 실질적 하락은 내년 봄부터 시작 예상 ↳ 로이터 설문(7 월 21~24 일): 영국 경제학자 70 명 전원 기준금리 3.75% 현 수준 유지 전망, 2026 년 내 인상 전망 없음 • EU 21 차 대러 제재 패키지 승인 — 4 년 만 최대 규모, 새도우 플릿·암호화폐 포괄, 조지아 정제시설도 첫 제재 ↳ 7 월 23 일 승인: 218 개 신규 제재(법인 170, 개인 48), 누적 약 3,000 개 규모 → 4 년 만에 최대 규모 ↳ 대상 범위: 은행, 암호화폐 네트워크, 석유 거래업자, 새도우 플릿(국제해운 우회 선박), 에너지 수익 흐름 ↳ 지역 확대: 조지아 쿨레비 정제시설이 첫 번째 주요 비러시아 기업 제재 대상 → 거래 금지(6 개월 뒤 효력) • 영국 경제 활동 반등하나 영란은행 동결 합의 — 고용·소비 강하면서도 임금·물가 약세로 파운드화 약세 ↳ 7 월 플래시 PMI 2 월 이후 최고, 6 월 소매판매 예상 상회, 6 월 물가 2.6% (예상 하회) ↳ 소비 심리 급등: 이란 전쟁 일시 완화 + 변함 신임 총리 교체 효과 ↳ 영란은행 정책 불일치: 최근 활동 강하지만 임금·물가 기대 사이클 최저 → 기준금리 3.75% 유지 압박 강화 • 유로스톡스 600(STOXX 600) 2 주 연속 상승 (+0.6% → 644.67), 혼조 실적이 강세 제한 — SAP 강세 vs. 폭스바겐·네스테 약세 ↳ SAP 클라우드 수주잔고 기대 상회로 강세 견인 vs. 폭스바겐 수익 가이드언스 철회, 네스테·시큐리타스 분기 이익 예상 하회 ↳ 지정학 완화 기대(이란 전쟁 소강 내러티브)에 따른 랠리 → 상승폭 제한, 기저 성장 우려가 지수 상단 억압 지속 • 이란-영국 군사 긴장 재부각 — IRGC, 영국 기지 '정당한 목표' 경고, 유가 프리미엄 지속 ↳ IRGC 경고: 영국 페어포드 기지에서 미군 폭격기 운용 지속 시 보복 대상화, 영국 군부 전쟁 태세 강화 ↳ 주간 초 이란 완화 내러티브(영란은행 금리인하 가능성 부상) 재반전 → 유가 프리미엄 재점화, 채권·달러 지지
일본 뉴스 4 건 HIGH	• 엔화 40 년 최저가까지 약세 심화, 주간 낙폭은 5 월 이후 최대 ↳ 달러/엔(USD/JPY) 164 수준 아래에서 등락, 일본 재무장관의 반복적 구두 개입에도 효과 제한적 ↳ 유가 상승, 연준의 긴축 기조, 글로벌 채권수익률 상승이 엔화 약세 주도 —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 없이는 약세 악순환 우려 ↳ 실질금리 음수 상태(6 월 근원 소비자물가 1.6% 대비 정책금리 더 낮음)로 엔화 캐리거래 매력 지속, 일본은행의 정책 지체 시 약세 심화 리스크 • 일본 8 월 원유 공급 지난해 월평균 수준의 100% 확보, 중동 차질에도 안정 ↳ 무역장관 발표, 7 월도 동일 수준 확보 — 단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완화 ↳ 중동 외 아시아태평양·라틴아메리카·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조달 다각화로 위험 분산
브라질	• 브라질 수출의 16~23%가 미국 37.5% 관세 대상 — 약 124 억 달러 피해 추정

권역	요약
뉴스 16 건 HIGH	↳ 25 일 브라질 정부 발표, 신규 미국 관세가 전체 수출의 16.5~23.1%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산업 단체 CNI 는 약 3,900 개 상품이 37.5%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총 손실액 약 124 억 달러 • 2026 기초 적자 전망 83 억 레알 개선 — 의무지출 하향으로 지출 봉쇄 축소 ↳ 25 일 재정·계획 부처 발표, 연말 기초 적자를 603 억 레알에서 520 억 레알로 하향 조정(83 억 레알 개선) ↳ 인건비·연금·복지 등 의무지출 재추정에 따라 지출 봉쇄(spending block) 규모를 237 억에서 179 억 레알로 축소 • 정부 연료 보조금 월 68 억 레알 부담 — 유가 정상화까지 한시 조치 ↳ 25 일 계획예산부장관 모레티 발표, 디젤 55 억 레알/월(리터당 1.12 레알, 60 일간) + 가솔린 13 억 레알/월(리터당 0.44 레알, 30 일 이상)로 구성 ↳ 정부는 국제 유가(Brent) 정상화 시 철회 예정 강조, 동시에 유가 완화 시 석유 수출세 정책 재검토 의향 표시 • 중앙은행,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로 금리 제한적 유지 필수 강조 ↳ 25 일 갈리폴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에서 이탈한 상태('디스앵커링')에 대한 우려 표명 ↳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견조한 가운데, 현 상황은 제한적(긴축적) 금리 환경 유지 필요 • 라틴아메리카 자산 주간 상승 유지 — 중동 긴장 완화, 원자재 가격 지지 ↳ 25 일 중남미 주식 -0.5%, 환율 +0.1%로 혼조 마감하였으나, 주간 누적으로는 상승 모멘텀 유지 ↳ 홍해 Houthi 반군 공격 우려 완화와 높은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쇄
EM 기타 뉴스 48 건 HIGH	• 중동 군사 긴장 급격히 고조 — 후티의 사우디 유전 공격에 미국·사우디 보복 강화, 원유 공급 리스크 부각 ↳ 지난 금요일(24 일) 이란이 쿠웨이트·바레인·요르단·이라크 주재 미군 기지 공격 → 미국 보복 공세 착수, 트럼프 행정부 '추가 공격 즉시 가능' 신호 ↳ 토요일(25 일) 예멘발 탄도미사일 2 발이 사우디 야무부 정유시설 겨냥했으나 사우디 방공망 요격 성공 ↳ 일요일(26 일) 이란과 연계된 후티군이 홍해 두 항구의 사우디 유전시설 직접 공격 → 사우디 보복 공급으로 확전, 사우디 벤치마크지수(TASI) -0.3%, 사우디프랑스은행 -4%(배당락 반영)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러시아 경제 전방위 타격 — 석유 파이프라인·전자상거래 공급망 차단, 경제성장 0% 수준으로 추락 우려 ↳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카스피 석유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흑해 수출 터미널 폐쇄 후 석유 생산 감소, 크렘린이 '에너지 테러'로 규정 ↳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 예카테린부르크 물류 허브가 드론 위협으로 일시 폐쇄 (지난 일주일간 반복 공격으로 운영 중단) ↳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 국방산업 회의 개최지역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사상자 10 명·부상 약 100 명 발생 • 러시아 중앙은행, 전쟁 여파 속 기준금리 인하 단행 — 드론 공격 촉발 인플레이션 급증·생산

권역	요약
	능력 감소 우려, 2026 년 성장률 0% 수준 전망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4.25%에서 14.00%로 25bp(베이스포인트) 인하(시장 예상 대다수: 현 수준 유지, 소수 매파 진영은 인상 제안) - 이번 인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대규모 정유시설·전자상거래창고 공격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급증과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중앙은행, 2026 년 경제 성장률이 0% 수준까지 악화 가능하다고 전망(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 4~5% 범위), 기업의 미래 투자 의향 급락 반영 • 남아공 랜드, 4 개월 만의 신약세 기록 — 중앙은행 '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이 시장 기대 빚나감, 통화 약세 가속 - 남아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00%에 동결(시장 예상: 인하), 금리 인하 연기 결정에 투자자 실망 속 랜드 대폭 약세 - 랜드/달러 환율 16.8351 로, 4 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7 랜드 수준에 근접; 전일 대비 -0.1% • 사우디-미국 투자 협력 확대 — 공공투자펀드(PIF), 미 정부기관과 최대 250 억달러 규모 양해각서 체결 - 사우디 공공투자펀드(PIF)가 미국 수출입은행과 최대 150 억달러 규모 양해각서(MOU) 체결, PIF 포트폴리오 기업의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자금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 - 별도로 PIF 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다국간투자보증기구(MIGA)와 최대 95 억달러 규모 MOU 체결(IFC 60 억달러, MIGA 최대 35 억달러) - 협력 분야: 첨단기술, 우주·항공, 인프라, 미래이동성(자동차), 물 안보, 광물자원 — 사우디의 비석유산업 다각화(Vision 2030) 및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차원
중국 뉴스 5 건	• Trip.com,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52 억 위안 과태료 부과 - 중국 국가시장감시총국(SAMR)의 조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 추세 재확인 • CATL, 2 분기 순이익 36.5% 증가…에너지저장 사업 견인(225 억 위안) - 배터리 업체 CATL 의 4~6 월 순이익 225 억 위안(약 33 억 달러), 매출 56.9% 증가로 시장 예상 상회 - 에너지저장 사업의 강성장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를 상쇄한 핵심 요인 - A 주 자사주 매입 계획 200~400 억 위안 발표로 경영진의 주가 전망 자신감 표현 • 홍콩 거래소·증권당국, 상장 기준 완화·ETF 규제 조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 HKEX 가 복수의결권 구조 기업의 시가총액 상장 기준을 절반으로 인하, 기밀 IPO 신청 대상 확대 - 홍콩 증권감시당국도 레버리지·인버스 ETP(상장거래상품) 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발행사의 팩터 조정 유연성을 확대하고 일일 공시 의무를 강화
한국 뉴스 6 건	• 한국 칩 제조사, 미국 기술회사와 10 조대 반도체 협력 -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5 년 \$2,000 억 달러 메모리·파운드리 협력 양해각서 (정정: 초기 보도 \$200 억 달러) - SK 그룹, Nvidia 등 미국 기업에 \$7,500 억 달러 규모 칩 공급 -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미국 기술회사들과 1,375 조 원 규모 칩 파트너십
인도 뉴스 6 건	• 유가 배럴당 \$100 돌파, 루피 사상 최저 근처…인도준비은행 개입·재정부 완충장치로 대응 루피 사상 최저 96.96 근처, 연초 이후 -7.5%…고유가·국내 주식 부진·기업 환노출 헤징 압박

권역	요약
	가중 ↳ 인도준비은행, 국영은행을 통한 달러 매도 개입으로 사상 최저 돌파 저지...외환보유액 유지(주간 +10 억달러) ↳ 재정부장관, 엘니뇨·유가 충격에도 예산 완충장치 충분하다 강조 • 인도 주식시장 5 주 연속 하락, 은행 순이자마진 악화·기업 인플레이 압박 (NIFTY·SENSEX - 0.43%) ↳ HDFC Bank 2.5 년 만에 최대 주간 낙폭 -9.4%, Axis Bank -7.6% — 순이자마진 악화에 기인 ↳ Tata Consumer, 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 상회했으나 원재료·포장재 비용 변동성 지속 시 추가 인상 경고 ↳ 포장식품·음료 강제로 농촌 소비 탄력성 보유하나, 수익마진 압박은 업계 전반적
남미 기타 뉴스 1 건	• 콜롬비아, 중남미개발은행(CAF)과 90 억달러 자금조달 협약(2026~2030) ↳ 규모는 이전 자금조달의 2 배, 콜롬비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상당 ↳ 에너지·인프라·사회복지에 배정되며 민간부문·지방정부가 접근 가능 ↳ 당선자 Abelardo De La Espriella 는 신뢰 신호라 평가
프론티어 뉴스 1 건	• 루마니아 6 월말 재정 적자 GDP 2.0%, 전년 동기 3.64% 대비 1.64%p 축소 ↳ 금요일 재정부 발표, 명목 적자 410 억 3,000 만 레이·세입 3,425 억 레이(GDP 의 16.7%) ↳ 2026 년 연간 목표 6.2% 달성 경로 양호한 가운데, 5 월 정부 붕괴로 신정부 미구성 상태에서 재정 정책 연속성 불확실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